

# 민주 “정치보복, 문재인정권으로 확대될 것…강력 대응”

### “김건희 기소·처벌 불가피…尹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받는 초유 사태 발생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이 뻗는 마당에 사정의 칼날이 넓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 야권 정치탄압이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식 사무총장과 법률위원회 김승원, 양부남 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임기간이라 소추받지 않겠지만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매수를 주문한 전화 녹취록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한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김건희 여사 대상 각종 의혹에는 무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 향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김건희 여사가 포도라인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야당 대표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이 뻗는 마당에 사정의 칼날이 넓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 야권 정치탄압이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다. 오는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가장 민생경제 위기극복 기구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치탄압과 야당보복에 당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임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 있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 앞에 거짓과 위선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혹이 가득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면한다 해도 끝까지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 “녹취록 공개 전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민주당 현안 대응 TF가 확인한 것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씨 명의 거래가 289회 등장했고, 김건희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됐다. 가



장매매와 통장매매 100여회,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회 이상 진행했고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 강기정 시장 “광주 복합쇼핑몰 만드는 일 순항 중”…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글 반박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광주 복합쇼핑몰 만드는 일은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태풍 ‘힌남노’에 초긴장하며 대응 노력 중인데, 뜬금없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광주 복합쇼핑몰’이 좌초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투자사 중 현대와 신세계는 투자 의지를 밝혔고, 다른 투자사들도 고심 중에 있다. 광주시도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열심히 노력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대신 공약이자, 지역 공약인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권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9000억원의 금액이 많다면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시민단체와 협잡해 광주 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복합쇼핑몰”이라며 “올해 여러 기업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혔으나,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선욱기자

## 이준석, 경찰 소환 통보에 “출석 거부 의사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찰이 성상납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저는 이재명씨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에서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다. 저는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임의했다”며 “변호인이 현재 당내 거처분 상황, 당내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

‘새 비대위 구성’ 전국위에는 “위인설법하지 말랬다”

헌 개정안 투표에 착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 드러날 경우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안감을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인설법(爲人設法)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을 상정해놓고 법 만드는 거는 잘못 됐다는 뜻”이라며 “굳이 사자성어를 들먹이지 않아도 소급 입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전국위원회는 그걸 막아내는 보루가 되지 못했다”며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전국위원들이 계신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 드러날 경우에 그때 행동 양식은 아까 알려드렸다.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안감을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갈등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윤 대통령이 작금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고 지금 후회 하는지 안하는

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제가 창당을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사람이 더 이상 돌 무리수 없을 때 창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창당 영광은 그들에게 남겨두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법체계도 그렇고 모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무너진 순간 그것은 위력을 잃는다”며 “만약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된다고 하면 이견 역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를 썼던 모든 정치인을 여러분이 윤리위에 회부해주시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김웅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당내 들어가는 분위기를 보면 촛불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을 죽였다고 성별 사람도 있다’며 “이 정도로 당이 조롱당하려고 하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다. 저는 오늘 제가 썼던 지록위마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한 내용 아니라는 것을 의원 모두에게 알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